

다오위도의 진상

독일 / 크리스티 네비



외문출판사

독일 / 크리스티 네비

다오위도의



외문출판사

2015년 제1판

알림:

외문출판사유한책임공사의 도서(중국어판과 영어판 전문)는

이미 중국인터넷보도센터에 입력되어 있음. 도메인은

<http://www.China.org.cn>

외문출판사유한책임공사 출판

(中國北京百萬莊24號)

우편번호 100037

ISBN 978-7-119-09341-3

중화인민공화국 경내에서 인쇄

우리의 세계는 이미 하나의 '지구촌' 으로 되었다 .

우리는 서로 의존하는 사이이다 .

우리는 반드시 피차간의 격차를 이해하고 존중해야 한다 .

역사의 힘은 미래를 향해 움직이고 있다 !

나는 《신비로운 중국》 시리즈 다큐멘터리 프로듀서 크리스티 네비이다. 여기서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다오위도(釣魚島)에 관한 문제이다. 이곳은 본래 사람이 살지 않는 작은 군도였으나 최근 들어 태평양 분쟁의 촉매로 되었다. 다오위도의 분쟁은 후제국주의 식민침략의 부활을 의미한다. 오늘날까지도 그 잔여 세력은 여전히 아프리카와 중동, 아시아를 곤혹스럽게 하고 있다. 이번에는 일본제국주의이다. 1895년, 일본은 갑오전쟁에서 득세한 기회를 타서 다오위도를 강점했다. 그러나 다오위도는 자고로 중국의 고유한 영토이다.

다오위도 문제는 중일 두 나라 역사적 연원의 큰 배경에서 보아야 비로소 딱딱히 알 수 있다. 이제 우리는 시간의 순서에 따라 이 기간의 역사를 차근차근 살펴보자. 이 기간의 역사는 흔히 재난적이고 심지어 충격적인 것이지만 우리의 목적은 역사의 진상을 밝히고 민족의 화해를 돕기 위한 데 있다.

차례

- 001 _ 일본이 일으킨 중일전쟁
- 017 _ 식민주의 열강들의 중국에 대한 통제
- 037 _ 중국 민중의 8년 항일전쟁
- 049 _ 일본의 변함없는 침략 야심
- 061 _ 일본의 전쟁 범죄 행위
- 083 _ 댜오위도 분쟁
- 101 _ 화해를 기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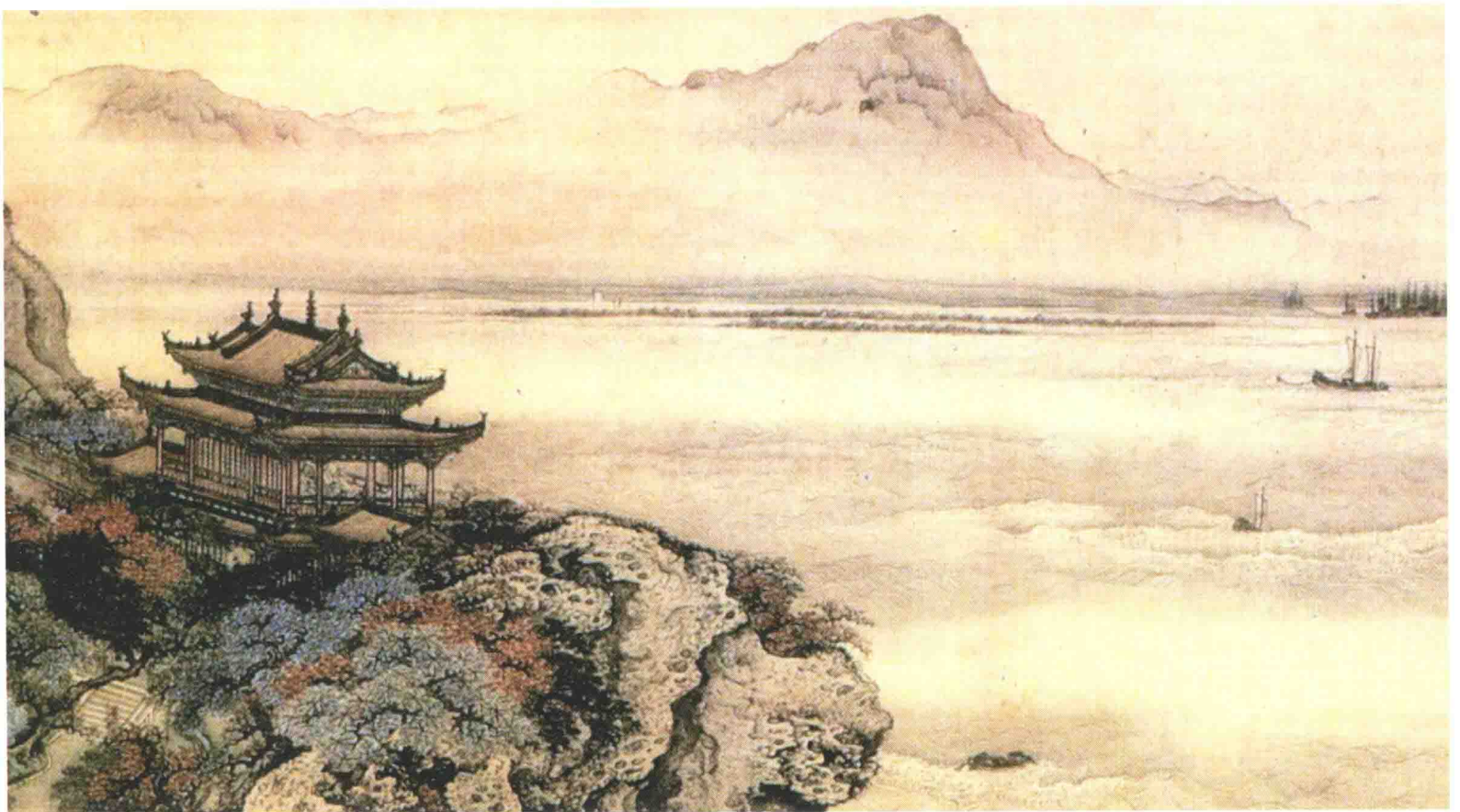


▲ 당(唐)대의 궁녀도

중일 양국은 지리적으로 바다 하나를 사이 두고 있으며 일본 문화에 대한 중국의 영향은 심원하였다. 비록 중국의 선종, 서예, 철학, 건축과 법률이 일본에 전파되었지만 양국의 관계는 뿌리와 줄기가 서로 얽히고 심지어 원한이 쌓인 지가 오래 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

▶ 서기 663 년에 발생한 백강구(白江口) 전투

▼ 일본에 영향을 미친 중국 산수화





◀ 1633 년 일본의 폐관쇄국정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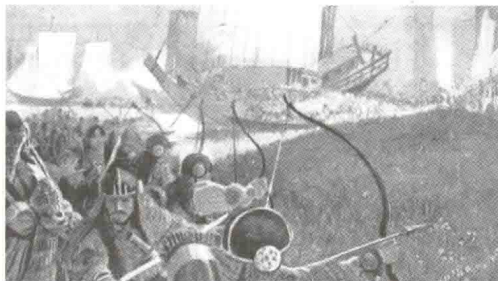
중일 양국의 역사에 기록된 첫 무력충돌은 서기 663 년에 말발하였는데 역사적으로 백강구(白江口) 전투라고 한다. 당시 왜구들은 국경을 대거 쳐들어 왔으나 당(唐)나라의 해군에 의해 패전했다. 이것은 후일 양국간의 분쟁에 복선을 묻어놓았다.

▶ 중국의 영향을 받은 일본의 서예

양국 간의 해상무역은 줄곧 매우 중요한 자리에 놓여있었다. 저장성의 Ningbo와 항저우항은 중일 통상거래의 가장 직접적인 문호였다. 하지만 일본의 해적활동이 끊임없이 계속됨으로 인해 중국과 조선 상인들이 재난을 겪어야 했을 뿐만 아니라 일본 상인들까지도 재난을 면치 못하였다. 때문에 명(明)나라(서기 1368 ~ 1644 년) 황제는 칙서를 내려 Ningbo항 하나만을 중일간 통상항구로 이용하게 했다.







▲ 조선에 대한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공격은 격패되었다.

도쿠가와와 쇼군은 일본의 국외 내왕을 모두 두절시켰다.

◀ 1597년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조선에 대한 재차 공격을 감행했다.

▶ 백강구 전투에서 일본의 공격은 중국군에 의해 격패되었다.

도요토미 히데요시(서기 1537~1598년)는 일본 전국(戰國)말기에 전국을 통일한 장령이었다. 그는 줄곧 중국을 욕심내며 군침을 흘려왔다. 당시 조선은 중국의 종속국이었다.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명나라로 들어 갈 길을 내어달라’고 조선에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조선을 침범하기 시작하였고 1592년에는 만주를 강점했다. 그러나 조선유격군은 끊임없이 일본군의 보급선을 공격하여 일본군에 심중한 타격을 주었다. 1593년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하는 수 없이 정전요구를 받아들였다. 그러나 4년도 채 안되어 또다시 쳐들어왔다. 이번에는 중국과 조선이 공동으로 응전하여 또다시 일본군을 격파했다. 여지없이 패배한 일본군은 조선반도를 철퇴하면서 가는 곳마다 불을 지르고 학살과 약탈 등 만행을 감행했다.





▶ 1644 년, 중국의 명(明) 정부가 전복되었다.

1633 년, 도쿠가와 쇼군은 일본이 외래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확보하기 위해 일체 국제무역을 중지하고 외계와의 직접적인 연계를 차단했다.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재차 침범해 왔을 때 명(明)나라는 모든 힘을 전쟁에 기울여 대량의 인력과 물력을 소모한 후과로 국고가 텅 비게 되었다. 이때 만(滿)족인들이 빈틈을 타서 쳐들어왔다. 명나라는 일격에도 견디지 못하였고 서기 1644 년, 만(滿)족인들이 명나라의 통치를 뒤엎고 청(淸)왕조를 세웠다.

일본 메이지(明治)유신 초기(서기 1868 ~ 1912 년)에 메이지천황(서기 1852 ~ 1912 년)은 류큐군도를 빼앗기 위해 중국과 끊임 없이 싸웠다. 류큐군도는 하나의 독립 국가였으나 청(淸)나라와는 종속국관계에 처해있었다.





▲ 1945 년 3 월 , 중국역사지도편찬사가 출판한
《중한일 정세도》

【링크】 중국문화의 영향을 받아온 류큐군도

1372년부터 류큐는 중국의 속국으로 되었다. 명(明) 태조 주원장(朱元璋, 1328 ~ 1398년)은 민인〔閩人, 오늘의 푸젠(福建)인〕36개 성씨의 주민들을 류큐의 주미(久米)촌에 파견하였다. 이로부터 류큐는 중국문화의 영향을 받게 되었다. 고대 류큐의 공식문서는 모두 한어(漢語)로 작성되었으며 중국, 조선, 베트남에 대한 공식문건도 모두 한어를 사용했다. 한자문화권의 일원이었던 류큐인들은 유학(儒學)을 숭상하였고 공자(孔子) 등 유가의 성인들을 존경했다. 따라서 류큐에서도 향상현(向象賢), 채온(蔡溫), 정순칙(程順則) 등 유학 대가들이 배출했다.

▼ 명(明)·청(淸) 시대에 류큐왕국에 출사한 객봉사 진간(陳侃)이 1543년에 집필한 《류큐출사록》

